**왕상2244 Note**

**호크마 주석**

성 경: [왕상22:44]주제1: [아합의 최후]주제2: [여호사밧의 행적]

▶ 여호사밧이...더불어 평화하니라 –

대하 18:1에 의하면, 유다와 이스라엘의 평화 상태는 양국 왕가의 혼인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. 즉 아합의 딸 아달랴(Athaliah)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(Jehoram)을 서로 결혼시킨 것이다.

결과적으로 이 정략적 결혼은 남북 분열 이래 60여년간 지속되어온 분쟁의 종식을 가져왔다. 이러한 결혼 동맹은 당시 외세의 침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정세에서 촉발된 것이라 볼 수 있다.

그러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보전의 측면에서 볼 때, 이 결혼은 결국 남왕국에 우상숭배와 정쟁(政爭)을 초래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(왕하 11:18; 대하 22:3, 10).

그뿐 아니라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선견자 예후(Jeehu)로부터 '악한 자를 돕는' 행위로 비난을 받았다(대하 19:2).

물론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민족주의자 여호사밧의 뜨거운 열정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. 즉 그는 비단 주변 세력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통감하였기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남북 분단 이래로 점점 짙어져 갈 우려가 있었던 상호 이질화의 경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였던 관계로 민족 단합을 자신에게 부과된 주요 지상 과제들 중의 하나로 여긴 듯하다.

하지만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그의 노력들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을 유발하고 말았다.

(1)너무 성급했음 : 애초에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던 것인 만큼(12:24), 여호사밧은 단합 의지를 실행에 옮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보다 진지하게 물어 보았어야 했다.

(2)피상적, 인위적 노력에 치중됨 : 북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음에도, 여호사밧은 군사적, 경제적 동맹이나 연혼(連婚)정책 등만을 강구해 나갔던 것이다.